

제15차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20. 12. 07. [월] 09:30 ~ 13:00
장 소	현대해상빌딩 8층, 회의실
참 석 자	위원장 등 9명 [재적인원 11명 중 9명 참석]
주요내용	○ 공론조사(시민참여단) 행사 일정 재논의 ○ 공론조사(시민참여단) 2차, 3차조사(안) 논의
회의결과	○ 공론조사(시민참여단) 행사(사전교육[0.T] 및 숙의토론회) 일정 재논의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행사 계획 일부 조정 - 사전교육[0.T] : 12. 12. 전주시청 강당 → 숙의 토론회와 통합 개최 - 숙의 토론회 : 12. 19. 오펀리스컨벤션 → 조건부 확정 [※ 장소, 진행방식 변경 검토] ※ 조건사항 ① 시민참여단(120명) 참석 여부 확인하여 개최 여부 결정 ② 회의장소 : 15명 정도 수용 가능한 공간(10개소 이상) 확보 필요 ③ 진행방식 : 조별 토의(조별 15명 정도 직접대면), 전체 토의(120명 온라인 비대면) ▣ 상기 조건 사항 충족 시 계획 일정대로 추진 ○ 공론조사 시민참여단 2차, 3차 조사(안) 일부 논의 - 시나리오(안) 선호 정도, 연관검토사항 관련 중요도 및 인식도 조사 등

제15차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회의록

#. 개회

발 언 자	발언 내용
간사	-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간사 ○○○입니다. -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 참석해주신 위원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 금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적 인원 총 11명 중 두 분이 참석이 어렵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운영 규정 8조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차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개최 하겠습니다. - 우리 회의는 진행사항 보고, 공론조사 관련 행사 미리 좀 이야기가 되었습지만 그다음에 2 3차 조사 및 자료 검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마이크를 위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제 15차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 그럼 먼저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진행상황 보고

전주시 관계자	- 진행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 시 홈페이지 상에 의견 제기는 총 지금까지 43건이었고, 지난 회의 이후로 새로 개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 그리고 금일은 공론조사 행사 추진 관련된 사항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

#. 방역지침 관련 사항 논의

전주시 관계자	-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2단계 방역 지침을 기준으로 검수해 봤을 때 우선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세부 지침이 나와서 배포를 했고 거기에 따른 부분은 장시간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각 개인별 2m 이상 간격 유지하면서 한 명당 4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 그리고 식사 자체는 저희가 지금 뒤편은 절대적으로 불가하고, 가능하면 이걸 도시락 그리고 별도 공간을 이용해서 최소 100인 이상의 행사 금지한다는 그런 부분으로 했고요. - 또 규모 불문하고 가급적이면 취소 또는 연기를 해라. 그리고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을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함께 같이 어울려서 섭취를 하는 그런 취식 행위는 불가하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토론의 진행 자체는 기본적으로 특성상 대면 토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조별 토의를 하더라도, 이게 각 분리적인 독립적 공간에서 조별 토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	---

	전체적인 공간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장시간에 또 걸치다 보니까 감염자 발생이나 그런 우려가 크고, 또한 시민 참여자분들이 당초에 제가 조사할 당시에는 1.5단계 그리고 그렇게 그때는 참여 의사가 있었지만 이렇게 지금 심각 단계로 접어들다 보니 참석 여부에 대한 불투명으로 다시금 재조사를 해야 하고 이 방식이 바뀐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참여자에 대한 먼저 선행 이해를 시켜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그리고, 1차 제가 오리엔테이션 장소 자체가 시청 강당이었습니다. 전체 120명을 지금 모아놓고 교육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100명 이상이 아예 금지되기 때문에 지금 개방 자체가 또 시청에서도 아예 불가방침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다른 대관장들도 마땅히 알아보기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컨벤션 홀 같은 경우 3차 조사를 위한 공간은 충분하지만 독립적인 공간이 아니고해서 어려워 보입니다.
위원장	- 잘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저희들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전체 모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결론은 나와 있는 것 같고요. - 공론화 진행 관련 김 대표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 번만 조금 더 죄송하지만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공론화 진행 방식 논의	
공론화 진행 관계자	- 아까 회의 시작 전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 다시 정리해 드리면 100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대면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공론화의 기본 취지나 생각에 가장 부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겠습니다. - 일단 그 전제입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다양한 형태의 공론화 방식이 논의가 됐었고 실제 대한민국에서는 국가 단위 공론화에서는 완전히 100% 온라인 공론화도 한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형식의 세미 온라인도 있었고요. -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선례가 있는지 제가 간단히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120명이 저희가 토론을 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는 100%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20명의 시민 참여단이 각자 자신이 편한 장소에 게시고 카메라가 달려 있고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고 스피커가 있는 pc 환경이 되면 120명이 저희가 하나의 스튜디오를 만들고요, 여기가 중앙무대가 되겠죠. 이 중앙무대가 120개 pc가 연결된 상황을 만들어서 일종의 토론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 첫째가 전체토론 둘째가 분임토의, 이 두 가지가 계속 상호 교차하면서 진행이 되는데요.
- 120명이 줌(영상회의 프로그램) 같은거 요즘 같은 거 경험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까마는 120명이 한꺼번에 모이고 중앙에서 컨트롤 하면서 전체적으로 의논하는 상황이 하나 있고요.
- 분임토의가 되면 중앙에서 이미 편성된 조로 각각의 참여자들을 묶습니다. 가운데서 컨트롤을 할 수 있거든요.
- 그러면 10개 정도 짝고 각각의 모데레이터가 그 방에 들어가서 같이 토론하는 방식, 그래서 이것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 전제조건은 첫째는 시스템 환경이 다 갖춰져야하고요.
- 두 번째는 120명이 최소한 pc를 만지고 운용하기 위한 운용 능력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전혀 모르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누가 120명 모두에게 지원 스텝이 붙을 수는 없으니까 말이죠.
- 그래서 지금 기존에 선행된 선례를 보면 미리 먼저 가서 확인을 다 시켜드렸습니다.
- 참여자가 특히 고령에 익숙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미리 방문해서 확인도 한 번 하고 테스트를 하고 이런 과정까지 있어서 꼼꼼하게 한다면, 두 번째는 어쨌거나 시스템이 돌아가기가 전제조건들을 확인하고 또 중요한 건 이 환경에서 한다는 것을 120명이 동의한 상황에서 진행할 수 있거든요.
- 한두 분이라도 나는 이런 식의 논의에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고 있는 얘기가 복잡해지겠습니까마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서 진행된 안이 100% 온라인 공론화가 있고요.
- 두 번째는 세미 온라인인데 10명씩 묶는 겁니다.
- 10명씩 묶어서 예컨데 1조는 전주시청 2조 전주시의회 뭐 상임위원회 어떤 방 이렇게 해서 10개 접촉하는 방을 만들고 대면접촉을 하고 그 10개의 각각의 방들이, 방 안에서는 10명은 대면 접촉을 하는 거거든요.
- 분임토의를 하고 그리고 이 10개의 조가 하나의 중앙시스템 안에서 화면이 10개가 뜨겠죠. 그리고 10개의 방에 앉아계신 모습이 보일 거고. 여기서 시민대표가 발표하고 그러면 10개의 방에 딱 이 환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스피커도 좀 여유가 있고 화면도 있고 그다음에 진행하는 모데레이터가 가운데 있고 옆에 진행 스텝이 온라인에는 저희 스태프 2명이 됩니다.
- 메인 진행자 한 명 그다음에 도와주는 한 분 시민 속의 토론할 때는 대면으로 접촉하면 진행하면 모데레이터가 두 명이 들어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혼자서 할 수 있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버리면 각 조로 2명씩 참여를 하셔야 진행이 될 겁니다.

	- 그래서 10개 방에 10명씩 저희가 접촉토론을 하고 분임토의는 전체가 보이는 것은 10개의 화면이 모이는 메인 조정실에서 10개의 조가 상호 활동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 하나는 3안이라기 보다는 2-2안이 될 것 같은데, 방을 10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접촉공간을 3개 정도 만들어서 30명, 30명, 40명 정도 진행하는 방안이 있겠죠. - 이렇게 된 경우에는 두 가지 고려 사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첫째는 예산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수밖에 없고요. 준비하는 시간도 좀 필요하고요. - 그리고 그 문제는 아마 조금 있다 다루시겠습니까만 모집도 지금 이번 12일, 19일이 아니면 날짜가 안 맞아서 못 오시는 분도 있고 이 방식에 동의하지 못해서거나, 지금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건강상의 문제가 나올 위험이 있는데 그 토론에 참석하기 어렵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도 새로운 모집과정과는 별도의 예산이나 추가적인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된다면 첫 번째 100% 온라인인 경우에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면 공간의 문제는 그렇게 걱정할 게 없고요, 메인 스튜디오가 잘 꾸미면 됩니다. - 전주 시청이었던 어디가 되던, 그리고 온라인 환경을 잘 체크합니다. - 두 번째 2안으로 가실 경우에는 10개의 공간, 다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대학 같은 데가 만약에 섭외가 된다면 단과대학 건물 정도를 구분해서 법학대학에 3개 조 그다음에 공과대학에 4개 조 좀 이렇게 하고 적어도 계단도 약간 구분해서 1, 2조는 이쪽 계단으로 오르내리고 3, 4조는 저쪽 계단을 오르내리고 이렇게 해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이렇게 장을 만들면 진행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한다면 적어도 방역지침을 지키고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다가오는 12일에 이걸 바로 진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전제로 논의가 되야하지 않을까 저희들 생각입니다.
위원장	- 혹시 추가적으로 뭐 알고 싶은 또 사안이 있으시면 물어보시죠.
○○○ 위원	- 혹시 온라인으로 해보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사실 요새 컨퍼런스를 많이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메인이 발표를 하고 저희가 질문하고 상호 이게 되야 되잖아요. - 그러니까 상호 소통에서 온라인은 어떤 문제 경험이 있으신가요?
공론화 진행 관계자	- 그러니까 비대면 대면을 했을 때보다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그 부분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만은 공론화의 기본 정신이 훼손될 정도로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것은 없었고 기존의 국가 단위 공론화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크게 있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 두 가지인데요. 상호작용은 분임토의 안에서 10명 사이의 상호작용과 120명이 함께하는 상호작용은 조금 구분이 되어야 할 텐데 일단 100% 온라인인 경우에는 두 가지 다 조금씩 저하될 수밖에 없겠죠. -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간 참가자의 컴퓨터 인터페이스에 익숙함에 따라서 또 약간씩 영향력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는 약간씩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준비는 얼마나 잘하느냐의 문제이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세미 온라인의 경우에는 분임 조 안에서의 상호작용은 전혀 문제 될 게 없습니다. - 10명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되니까 그게 전체로 보이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감소한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저기서는 10명이 대면으로 하는거잖아요. - 만약 100% 온라인으로 갈 경우에 나는 지금의 컴퓨터도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 공간을 제공하기도 했습니까?
공론화 진행 관계자	- 아니요 대부분의 인원이 각자 자기 공간에 있고 그리고 그 10명이 하나의 회의실 온라인상에서 모이거든요. -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 혹시라도 설명을 잠깐 예시를 말씀드리자면 비판적인 문제가 있을 까봐 실제로 있었던 문제 상황들은 그런 겁니다. - 익숙하지 않은 분들 120명이 모이면 한두 명만 자기 공간에 오디오를 체크를 안 하면 120명이 그 혼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 그래서 익숙한 경험이 있는 분들, 저희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은 그래서 모든 120명의 오디오 컨트롤을 조화해서 할 수 있습니다. - 신속하게 그런 문제에 익숙해져야겠죠. - 화면 끄고 계속 안 보여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 그러니까 집중도가 확실히 곁에 있을 때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리고 또 문제 제기를 할 때는 이게 같이 한 공간에 있을 때는 이걸 마음에 안 듭니다. - 그래서 몇몇 분이 있으면 모더레이터가 직접 가서 설득도 하고 대화도 좀 나눌 수 있는데 온라인에서 빠져나가버리면 이게 통제가 불가능한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사실은 시뮬레이션이 준비되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 그런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이럴 저럴 것도 없이 코로나 조용해질 때까지 이 문제를 연기하자.

	- 그게 제일 편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마냥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도 모르는데 그건 또 12일, 19일이 아니라 내년으로 좀 넘겨서 잔잔해지면 다시 한번 출발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 제가 느끼기에 그냥 직감입니다마는 100% 온라인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또, 이 세 번째 한 30명, 50명 모여서 이 공간을 찾기도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서 지금 제 생각에는 만약에 대학의 공간을 빌릴 수 있다면 세미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물론 그렇더라도 12일, 19일은 불가능하다고 보시고 120분에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동의를 구하고 또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죠 - 12일, 19일 안되서 연기될 바에는 내년으로 넘기는 수도 있고 우리 위원님 어떻습니까?
○○○ 위원	- 사실 몇가지가 연관되어 있지않습니까? 어떤 방식을 택하냐에 따라서 일정도 그렇고 시민참여단에게 참여의사를 어떻게 확인할건지 12, 19가 아니면 또 물어봐야하기 때문에. - 저는 현실적으로는 2안 말고는 답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2안은 12,19 중에 할 수 있느냐. 일단 이번주에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럼 ot가 안되요. 그럼 남은 건 다음주 토요일인데 다음주 하루에 다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쉽지 않거든요. - 저는 웬만하면 올해 끝내고 싶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싶습니다. - 당일치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당일치기로 이게 준비만 되면 당일치기도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다음주에 장소섭외와 기술적인 부분만 가능하면 다음주에 몰아서 하거나.
○○○ 위원	- 지금 두가지를 고려를 다 해야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산과 일정을 고려해야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연기하면 올해는 못합니다. - 무조건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보셔야하는데 시민 참여단은 다시 모집해야합니다. - 그래서 이거는 조사는 어차피 다시 해야 하거든요. - 조사에 예산이 분명히 들어갈 거고 그래서 그게 더 나은 건지 아니면 예산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될 거 같고 - 지금 모집한 인원수로 가능하게 하려면은 어쨌거나 우리가 예정했던 이번주하고 다음주 중에 이거를 진행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저렇게 하기에는 이번 주에 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거 같아요. - 그러면 다음주 밖에 시간이 없는데 두 번 숙의를 한번 숙의로 줄이든지 뭔가 좀 결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 가급적 올해 저희들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120명 공론조사를 마치는 것을 저희는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칙으로 하고 또 여러 안 중에 세미 온라인이라는 방법이 가장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세미 온라인으로 간다면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앞서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 12, 19일 이틀을 하기로 했는데 19일 날 한 번 한다. - 저는 조금 시간을 1시간 정도 늘리더라도 타이트하게 하면 저기 OT와 전체적인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중요한 것이 장소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또 우리 진행하는 측면에서 장소뿐만 아니라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데 19일 날 해도 괜찮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 진행하는 측면에서 만약에 19일 하루로 갔을 경우에 어떻습니까? - 참석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간은 괜찮을 것 같은데 한 번 얘기해 주실래요.
용역 수행기관	- 일단 방법론상에서 온라인이라는 이야기가 전혀 안 된 상황이라서 그건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고 말씀하시다시피 이제 온라인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장소와 시스템이 어떻게 갖춰질지가 가장 큰 관건이고요. 그리고 사전에 아까 모집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모집은 120명 이상은 모집되어 있습니다. - 성, 연령이 좀 안 맞을 뿐이지 190명 정도가 참석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3번 아직 잘 모르겠다, 그때 돼 봐야겠다가 지금 300명 이상이 모집된 상황입니다. - 그런데 그분들 휴대전화는 다 저희가 확보를 했고 갖고 있어서 만에 하나 지금 시스템적으로 도저히 안 된다면 그러면 지금 올해가 좀 하기 힘든 상황이면 연락을 하셔서 양해를 구하고 1월 달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거는 가능한 상황인지 새로 조사하는 상황은 아니고 한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월 달로 넘어가더라도 가능성은 있다. - 가급적 19년 하는 게 좋겠죠? - 그러면 우리 저기 시에다가 하면 물어볼 수 있을까요? - 이 공간에 내가 볼 때는 느낌으로 대학이 가장 좋은데 대학이 전주 대학이나 우석대학이나 전북대학이나 혹시 이제 방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19일이면 방학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 한번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전주시 관계자	- 저희가 1.5단계였을 때 한번 계약을 한번 확인해 보고자 그쪽으로 했었는데 그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예 그 대관 자체에 대한 불가

	입장을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좀 여지가 없겠느냐 했더니 아예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혹시나 방학이라고 해서 입장 변화가 조금 생겼다고 하면 가능하겠는데 이대로 간다고 하면 어려울 거 같네요.
○○○ 위원	- 이게 상황이 대규모 공간이 아니고 15명이 들어갈 방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게 뭐 이런 식으로 요즘 수용성이 있지 않을까요.
위원장	- 이 상황에 이제 방학이고 10명씩 12명씩 한 10개 공간만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인근에 대학에 굳이 전북대, 우석대, 전주대 또 어디 있을까요? - 또 저기 기전 보건대 혹은 그런데 저는 조금 대학에 한번 협조를 한번 해봤으면 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시도해 봐서 그러면 이제 이게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19일 날 가능하겠느냐. - 오늘 오늘이 7일이죠. 예를 들어서 이번 주 내로 이번 주 12일 날 이번 주 안에 어떤 된다 안 된다가 결정이 된다면 19일 날 가능합니까
용역 수행기관	- 확인해서 만약에 참석률 자체가 아까 이렇게 동의를 구하는 건 맞으니까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면 아직 100% 제가 어떻다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위원장	- 두 가지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번 주 내에 알아봐서 공간이 확보됐다 그러면 굳이 앞서 얘기한 대로 19일이 아니라도 조금 연기해서라도 할 수 있고, 만약에 그런 공간이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런 공간이 나올 수 있는 데는 저는 찾기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또 다시 연기하거나 하는 방법밖에 없죠. - 그러면 뭐 저희들이 이 상황을 가지고 계속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고민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어떻습니까? - ‘세미 온라인 방식으로 추진한다’ 라고 하는 원칙을 정하고 그리고 가급적 19일날 한 번에 OT까지 합쳐서 한 번에 진행한다. - 만약에 19일 안 되면 지금 확보는 되었다니까 공간이 나왔는데 준비가 조금 어렵다고 하면 그것은 날짜를 좀 연기할 수도 있다. - 그렇게 정도는 지금 저희들이 정할 수 있지 않을까. - 그랬을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대학이라고 보는데 그 대학과의 접촉하는 시간을 한번 쉼서 그때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는 거로 하죠. 어떻습니까? 더 의견이 있습니까?
○○○ 위원	- 19일 집중해서 하는 거에 동의하고요. - 여러 번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이기한테 일단 저희가 판단해 봐야 할 건 지금 시기가 비상 시기잖아요. - 비상 시기에는 사실 뭔가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저는 이걸 연기를 해야 할지 예를 들면, 숙의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요즘에 좀 회의가 더 익숙해져 있는데요. 시행착오를 거쳐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숙의를

	한다는 거 자체는 사실상 어렵다. - 그러니까 저희도 결정 중심의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지만 깊이 있게 토론을 주고받기는 저희같이 토론하는데 익숙한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과연 이런 숙의 없이 우리가 공론화 결과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절차상으로는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만 저희가 자신 있게 과연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이 좀 많이 우려가 됩니다. - 그래서 어쨌든 아까 뭐 세미 온라인 방식으로 하든 대면 방식을 기본으로 해서 저는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오히려 필요하다면 조금 연기할 바에는 3안, 적어도 50명 단위 이하로 모이는 대면 방식들에 대한 그거는 이제 후보군들이 있으니까 참여를 좀 받고 대신에 아까 모든 스태프까지 포함해서 50명 이하라는 거 방역지킨다는거 이런 부분들을 좀 어필을 하고 실제 그 준비를 해서 저는 오히려 3안으로 늦출거면 진짜 우리가 비상 이게 이 사안도 너무 중요해서 우리가 원래 일정을 고집해야 한다고 한다 보면 19일에 세미로 가는데 그러니까 과연 그런 시기인가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구요. - 두 번째는 만약에 19일 날로 하루를 몰아서 한다고 하면 다음 안전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데 제가 지금 전주시 유튜브를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 그랬더니 최근에 전주시장님이랑 같이 모여서 했던 기후 원탁회의 2시간 40분짜리가 하나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한 회의를 유튜브로 중계를 했네요. -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OT에 관한 내용들은 유튜브로도 가능할 것 같고요. - 유튜브에 전체 채널이 있으니까 오히려 OT같은 정도는 더 공개가 시민들에게 공개까지 될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설명하고 짹짹 하고 사전에 질문들만 미리 좀 받구요. - 그다음에 우리 시민 대표들이 발표하는 것들도 영상으로 미리 제작해서 카메라 2대만 있으면 되거든요. - 발표하는 사람 하나하고 피티 잡는 것만 하나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만 해서 온라인으로 대체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 첫 번째는 꼭 지금 우리가 이 비상시국에 올해 안에 해야 한다고 하는 걸 밀어붙여야 할 건가 하는 부분 하나고 그게 아니면 저는 3번 대안 소그룹 대면으로 가면 좋겠다는 거고 올해 안에 꼭 할 것 같으면 유튜브도 고민 한번 해봐야한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	- 잠깐, 오해가 있으신데 2번 안 하고 3번 안은 숙의 과정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 분임토의는 2번 안도 분임토의는 다 면대면이거든요. - 2번과 3번에 숙의에 있어서는 상관이 없고 공간의 문제만 있는거죠.
○○○ 위원	- 저도 비슷한 생각인게 어쨌거나 2번이나 3번으로 가는 안 중에서도 오히려 2번, 3번이 비슷할 거 같아요.

	- 차라리 온라인으로 할 거면 그냥 50명을 미만으로 하는 3번 안이 좀 낫지 않나. - 2, 3개의 그룹을 묶으면 한 3개나 4개 정도의 소규모실이 있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장소를 빌리기 쉬울 것 같은데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 대학교에서 안 빌려준다고 하는데 요즘 아무도 안 빌려줘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학도 절대 안 빌려주거든요. - 2번은 소규모실이 본부까지 합하면 11개가 있어야 해요.
○○○ 위원	- 그런데 3번은 준규모 룸이 3개 소규모가 1개 있어야 하죠.
○○○ 위원	- 3번은 그러니까 호텔을 좀 컨벤션을 좀 충별로 나눠서 대여를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 아까 제가 왜 3번을 생각을 안 했냐 그러면, 호텔은 생각을 안 했는데 이런 아까 우리가 빌리기로 한 큰 대형 그 공간도 하나의 공간으로 본다라고 하는 원칙이래요. - 그래서 내가 이거 어렵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 우리가 큰 공간을 쪼개면 3개 공간으로 얘기를 해주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주시에서 물론 호텔이 빌리거나 층이 다르면 가능하겠죠. -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해석을 큰 공간이 하나의 공간을 분리해도 하나의 공간으로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 위원	- 그게 아니고요. 별도의 공간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자리에서 할 수도 있고 혁신센터에서도 할 수 있고 나눠서 할 수 있다는 거죠. - 그래서 그냥 온라인에 나중에 하면서 전체 회의하고 발표와 질의응답만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하고 나머지 분임토의는 그냥 하시는 방법이 어떨까요?
위원장	- 그러면 이 공간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이 공간에서 하고 공간을 다 구분했다 했을 때 시스템상에서는 문제는 없습니까?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는?
융역 수행기관	-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게 이렇게 하려면 완벽한 시스템과 장소도 중요하지만 일단 제가 일주일 안에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저희가 도저히 안 될 것 같고요. -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여러 가지 장소 문제 이런 것들의 비용 문제가 발생합니다. - 그리고 만약에 하루로 묶어서 한다면 진행 쪽에서도 프로그램을 묶어야 한다, 압축시켜야 하는데 지금 양쪽으로 나눠진 상황을 또 한번 점검해서 묶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장	- 그것은 여러 가지 준비할 상황이 있다고 보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러 사항을 준비하는데 - 예를 들어서 이 3안 같은 경우에 현재 한 공간이 아니라 공간을 갖다가 여러 군데 나뉘어서 30명은 여기 있고 다른 건 저기 가고. 그런 것은 가능할까요? 그건 조금 시스템상으로서도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데
공론화 진행 관계자	- 그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정리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 세미 온라인에 2안과 3안의 차이는 장소 섭외의 선택지를 넓힌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나머지 시스템 만든 건 조금 더 시간과 예산의 문제이지 그게 불가능하거나 그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런데 장소에 어떤 확보를 본다면 2안보다는 3안이 낫겠죠.
○○○ 위원	- 현실적으로는 지금 2 안이든 3 안이든 19일 가능한가? 이게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용역 수행기관	- 저희가 저희 쪽에서 준비한다면 좀 불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장소 공간이 확보되고 그러니까 제대로 갖춰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새롭게 다 구축이 된다면 일주일 동안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 그럼 일주일도 아니잖아요.
용역 수행기관	- 장소 섭외가 내일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 위원	- 그러면 간단하네요. 연기할건가, 안할건가 그것만 결정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 그것만 결정하죠, 연기할 거냐
○○○ 위원	- 연기했을 때 시청에서 행정적으로 어려운 점이 됩니까?
전주시 관계자	- 우선 저희가 지금 전제한 부분은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바로 즉각적인 행사 진행은 어렵기 때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은 비대면 방식이나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당초 대면으로 했을 때 그 비용보다는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한 후에 이런 부분들도 방안에 대해서 결정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그거를 갖춰보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 위원	- 좀 연기를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 전주시 행정적 측면에서 볼 때는 연기했으면 좋겠다.
○○○ 위원	- 그리고 용역 수행기관 입장에서 연기해 주면 좋겠다 이거죠.
용역 수행기관	- 현실적으로 온라인으로 바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 위원	-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해야되는 것 같구요.

위원장	- 그러면 예산 확보도 필요하고 또 현실적인 측면도 필요하고 해서 그러면 당분간 연기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 언제까지 연기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전주시에서 행정 측면에서 이제는 괜찮겠다 예산 확보도 되고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 그러면 일단 12월, 19일 행사는 연기로 한다. 이의 없으시죠?
○○○ 위원	- 연기하면 가장 빨리 하면 1월 중순이거든요 -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세 가지는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 위원	- 이게 느려지면 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위원장	- 늦어지면 저기 120명 구하는 거 다시 다 확인해야하고요.
용역 수행기관	- 아니요. 일단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일정 자체라도 해야 저희가 언제 정도 한다는 게 좀 전제돼야 가능할 듯 싶습니다.
위원장	- 일단은 내가 볼 때는 1월 달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내가 볼 때는 2월 초, 2월 달에 해야지 1월 달은 상황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월 달 정도 2월에 한다. - 저기 그 잠깐만 전주시 지금 이거 하면 지금 얘기했듯이 예산의 변화도 있어야 되는 거죠? 분명히 현실적으로 그렇죠? -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정되면 언제쯤 결정되니까? -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 예산할 테니까 좀 시작해 달라고는 할 수는 있겠죠. - 그러면 지금 한 2월에 한다, 대충이라도 좀 날짜를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니까는 2월 정도 시작한다.
전주시 관계자	- 그 정도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2월에 시작한다 이렇게 정도만 얘기하죠.
○○○ 위원	- 지금 내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됐나요?
전주시 관계자	- 지금 최종 통과는 안 됐는데 지금 안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 그러면 지금 반영을 해야 돼요
위원장	- 이제 120분에게 좀 설명을 해줘야 하니깐 대충이라도 좀 얘기해봅시다.
○○○ 위원	-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추경을 세워야 해요. - 추경을 한다면 다시 내년에 가서 추경을 해야하는데
○○○ 위원	- 저는 좀 반대거든요. 언론이나 전주 지역 여론의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 문제가 계속 질질 끌어서 피로감이 좀 있거든요. - 따라서 이게 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니 효과적인 측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 그렇지만 어느 정도 소비에 효과는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리고 또 이 공론화가 시작할 때 물론 코로나는 변수 때문에 이런 이런 논의를 하고있는 건데 이게 가능한 방법이 있는데도 이걸 굳이

	대면을 해서 내년 언제 될지도 모르고 4월이 될지도 모르고 - 그래서 저는 이 문제 이 여기 우리가 애초 계획했던 대로 연말까지 하기로 했으니 연말까지 마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 위원	- 그런데 이게 연말까지는 제가 봐도 제가 만약에 참여자라고 시민이라고 하더라도 무리가 있다고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	- 그래서 아까 뭐 10명씩 12명씩 모여서 10개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요.
○○○ 위원	- 10명으로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 10명이 아니라 서너명도 지금 모이지 말라고 그러는 판 속에 뭐 10명이 모여서 하루종일 무엇을 회의하는 겁니까? 무리가 있다고 말할 것 같아요.
○○○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그런 결정을 일단 하기로 하고 그 참석 여부는 이 사람들 의견에 따라서 만약에 100명이 안 되고 70명이 된다 하면 그때 가서 논의할 사항이지 우리가 예상을 해서 저희 벌써 20명 모였잖아요. - 그런데 그것은 그다음의 문제이지 지금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정 안된다면 그때 가서 연기하면 되잖아요.
○○○ 위원	- 그러면 만약에 이걸 그대로 그냥 실행을 한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지금 용역 업체 쪽에서 장소 섭외 문제가 일단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로 하고요. 장소는 시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 시에서 안 된다면 그때는 안 되는 것이지. - 지금은 하지 말자고 그런 거 저런 거 위험성이 있으니 불가능하게 하지 말자고 하는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 위원회는 무조건 절차대로 하고 할 수가 없으면 못하는거고 참여자가 없으면 못하는 거죠.
○○○ 위원	- 우리가 절차대로 하더라도 이게 방역 방침에 어긋나요.
위원장	- 가능하다면 이제 올해 안에 끝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황이 지금 120분의 상황인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물론 120분 중에 지금 확보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나는 이런 상황에서 가기 힘들겠다 하는 분들도 아마 120분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느낌에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 120분 모으는 게 대해서 확보한 어떤 풀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공간을 찾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 위원님은 이제 찾아볼 때까지 찾아보고 그래도 없으면 연기하는 게 좋지 않느냐 처음서부터 연기라고 하는 것을 결정은 하지

	말자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 저는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처음에는 세미 온라인 2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3안 가급적 공간 확보적인 측면에서 쉬운 방법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3 안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3 안에 대한 걸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공간적으로 하여튼 30명 지금 120분 아닙니까? - 120분이면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까지 다 하면 150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150분이면 50명, 50명, 50명 이렇게 봐야 합니다. 대강 50명, 50명, 50명으로 봤을 때 그런 50분이 들어갈 수 있는 3개의 공간, 예를 들면 지금 느낌상 어디 어디 어디가 있겠습니까?
○○○ 위원	- 한국 전통 문화의 전당에 한지문화센터가 있고요. - 한국 전통 문화 건물이 있고 그다음에 공연장, 건물 등이 있습니다. -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 공간을 활용을 좀 해보는 게, 한지센터 회의실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그렇죠? 안 넓죠?
위원장	- 한 공간에 그 주변에 있는 공간에 이렇게 50명 그룹 하는 것이 더 좋지만 굳이 한 공간이 아니라도 된다고 하는 시스템 상만 갖추면 되지 않을까요?
○○○ 위원	- 교육문화센터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저는 저희가 가급적 그렇게 ○○○ 위원님 그 의견에 느낌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 공간을 한 번 조금 섭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전제는 그러면 3 안에 대한 거죠. 세미 온라인에 두 번째 안 이렇게 그룹화해서 이거는 한 50명 정도가 대면으로 하는 거죠. - 이 방법으로 가되 그 공간 하나만 찾아봐달라 하는 것을 주문을 하는거죠. 저희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안되서 연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오늘 이 회의의 결과 노력해 보자 올해 내로 끝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 한번 시에서 좀 알아보주시고요. - 그다음에 두 번째 이랬거나 저랬거나 예산에 대한 것은 추가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시기적으로 늦을지 몰라도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확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금 시에서는 도와주시고 또 진행하는 쪽에서는 양해해 주시고 또 ○○○ 위원님 도와주실 거고 하니까는. 그리고 그렇게 장소가 구해진다면 가급적 올해 내로 그리고 그 대신 한 번의 방법 OT 다 합쳐서 하루에 의해서 한다. 이것만은 정해질 것 같습니다.
○○○ 위원	- 3 안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3 안으로 간다는 것은 위험의 증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더라도 거기에는 사람 숫자를 그런 것을 50명 단위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거예요. 좀 더 줄여야 하지

	않을까. 사실 그것도 위험하지만 그래서 숫자의 범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 위원	-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할 때 우리 지난번에 시나리오 워크숍 했던 그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을 활용하면 우리가 5개까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우리 전체 홀에 두 개 옆에 각 공간 하나, 그러니까 큰 공간에 그냥 3개를 넣는 생각만 한 게 아니라 건물이 가용한 자원들을 생각하고 하면 굳이 3개 뭐 어쨌든 2개가 될 수 있고 옆에 있는 한 두 공간 쓸 수 있으면 4개 그룹도 될 수 있고
위원장	- 예를 들면 5개 그룹으로도 나눌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이걸 한 번 전주시에서는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한 공간에 5개 공간으로 나눌 수도 있고 가급적으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50명이라고 해서 50명 딱 세울 게 아니라 좀 소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소그룹화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시니까 그 취지를 살려서 5개나 6개 확보를 할 수 있다면 일단 저는 위원회 의견에 저희가 여기서 코로나가 어려우니까 안해 연기하자 하는 것보다는 저는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노력했다 하는 그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일단은 올해 내로 한다고 하는 노력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랑 번복하는지 몰라도 동의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	- 그런데 열흘도 안 남았는데요.
○○○ 위원	- 장소적인 문제는 만약에 혁신센터가 가능하다면 혁신센터에 로비에 4공간 있잖아요. - 그거랑 그러면 한 50명은 해결이 될 것 같고요. 40-50명 우리 썼던 룸이 좀 크잖아요. - 두 개 조는 들어갈 수 있잖아요, 파티션 하면 그러면 한 5개는 들어갈 4개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리고 현재 예약된 곳이 있잖아요. 거기를 룸을 2개로 분리한다고 하면 안되나요?
전주시 관계자	- 분리한다고 하면 큰 공간에 이제 파티션을 해서 두 개까지는 가능합니다
○○○ 위원	- 그러면 거기랑 여기랑 두 개로 원격을 하면 충분히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도 있을 거 같기도 하고, 아니면 혁신센터에 혹시 2, 3층 중에 회의실같은 거 조그만한 거 없나요?
위원장	- 혁신센터에 저희들 먼저 다 모인 데 있죠. 그거 두 공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 그럼 그게 두 개 되죠. 그러면 우리 빌린데 거기도 나눌 수 있죠.

전주시 관계자	- 컨벤션 같은 경우는 2개 공간 가능합니다.
위원장	- 아니 인위적으로 두 개 되고, 지금 우리 빌렸다는데.
○○○ 위원	- 여기가 두 개밖에 안 되나요, 빌렸다는데가?
위원장	- 혁신센터가 최대 몇 개가 나올 수 있습니까? 혁신센터에 4개요? - 그러면 혁신센터만 이용해도 가능하겠네요. - 그러면 어쨌든 혁신센터와 지금 예약해놓은 웨딩홀 빌려서 한다.
용역 수행기관	- 지금 컨벤션으로 지금 장소가 지금 잠정적으로 어찌 될지 몰라서 연기한 상태고요. 날짜 확정 픽스가 코로나 때문에 사전에 연락을 해줘야 해서 일단 잠정 연기한다고 전달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 다시 한 번 하면 되니까, 잠정 연기한다고 했으니까
○○○ 위원	- 근데 예식장에 70명이 분리를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용역 수행기관	- 근데 층고가 굉장히 높고요. 파티션을 친다고 천장까지 가는 게 아니라 중간 정도 치는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 그런데 그 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밖에 해석을 안 해준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 그렇다 할 지라도 한 공간이야, 한 공간에 50명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전주시 관계자	- 차라리 웨딩홀을 활용하기 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외에 공간을 외부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러니까 어쨌든 좋아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주시에다가 일임을 할게요. 굳이 3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는 있겠지만 우리 ○○○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조금 숫자를 적게 모이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만 드릴게요. - 그 부탁드립니다 원칙은 한다 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한다 쪽으로 정리를 하죠. 그리고 우리 아까 추가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확보에 주력을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 예산이든 확보해야 한답니다.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	- 저희 중앙부처같은 경우는 공무원 영상 회의 할 수 있는 이런 저기가 되있거든요. 전주시도 혹시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전주시 관계자	- 저희들은 영상 회의실 한 곳 있는데 거기는 공간 자체는 되게 작습니다.
○○○ 위원	- 각자 줌으로나 아니면 영상 회의로 저희가 들어가서 비대면으로 회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할거 같은데요.

위원장	- 제가 볼 때는 만약 공간이 확보되어지면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하는 것은 같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 그러니까 공간이 확보되고 그런 것은 시스템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같이 한번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이게 일단 그러면 지금도 유동적인 것이 일단 장소가 확보가 되는 것이 되어야 그게 확정이 되어야 그 다음에 이제 샘플 확보에 들어가죠. 그 전에는 들어갈 수가 없죠.
용역 수행기관	- 장소가 확정이 안 되면 연락을 해서 어디 몇 시에 한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 위원	- 이런 이야기를 통보를 못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일단 참여자 확보에 걸리는 시간도 있어요. - 그다음에 동시에 시스템 카메라하고 이거 설치하는 것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확보가 잘 되면 좋아요. - 그런데 확보가 이게 지금 19일 날로 지금 잠정적으로 정한 거죠. - 그것이 날짜하고 장소를 확실히 정해야 확보(시민참여단)에 들어가겠죠.
용역 수행기관	- 전화할 때 물론 12일날 OT하고 19일날 한다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지금 안 된 상황이고요. - 일단 그리고 그게 만약에 하루에 합쳐서 이렇게 한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한다는 그게 설명이 전혀 안 된 상황입니다. - 그것까지 설명드리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위원	- 과정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열겠다 이것이 확정이 될 수 있겠네요.
○○○ 위원	- 그러니까 혁신센터는 다섯 개 룸 가능하고 나머지 의회하고 한 몇 군데만 더 하면 2개 3개 정도 룸, 여기 하나 있고 이렇게 하면 가능할 거 같아요.
○○○ 위원	- 여기는 또 예약은 지금 있을지도 몰라요.
위원장	- 이렇게 정리를 하죠. 지금 원칙은 가급적 하여튼 올해 내로 하도록 노력한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결론을 내리고 그런 차원에서 공간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기로 했으니까 공간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그 공간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는 시스템적으로 가능한가. 그리고 날짜에 대해서는 12일, 19일 날로 얘기를 했지만 조금 연기한다고 또 알려드려야 하고 알려드릴 수도 있고, 또 120명이 참여한다고 했지만 날짜가 바뀌면 참여 못할 수도 있지만 지금 120명 중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여한다는 인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120명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일단은 노력을 하되 저희들 나중에 빨리 알려주셨던지 이러이러한 이유로 올해는 도저히 안 된다 해서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저희들 그때 연기를 하든지 결론을 내리겠다. - 일단은 최대한 하는 모습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내용중에 하나가 사전교육 및 숙의 프로그램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자제하고요. 다시 하루로 했을 때 프로그램을 좀 짜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계속해야 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조사 2차 공론조사와 3차 공론조사에 대한 내용 검토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얘기를 해왔던 게 있고 진행상에서 수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2차 공론조사 3차 공론조사에 먼저 2차 공론조사를 조금 설명해 주시죠. 나와서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참여단 동영상 제작 논의	
전주시 관계자	- 잠시 설문조사 앞서 그때 ○○○ 위원님께서 얘기하고 시민 참여대표 대표 분들 총 여섯 분에 대해서 사전에 유튜브라는 그 동영상 제작을 해서 배포할 수 있도록 하자. - 확인을 해봤더니 6분 중에 5분은 그래도 참여 의사를 한 분이 참여가 어렵다 그래서 이 A, B, C 안에 대해서 대표 한 분씩만 해서 동영상을 제작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2안으로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다섯 분이시죠 그분들 안에서 그냥 A, B, C 각 동영상을 제작을 해야 할 것인지 논의 부탁드립니다.
○○○ 위원	- 어차피 3개 시나리오고 두 분이 협의해서 한 명이 해서 제작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 위원	- 의견이 다른 분들끼리 보완하려고 두 분씩 하라고 했잖아요? - 워낙 스펙트럼이 넓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안 하신다고 한 분이 본인과 생각이 비슷한 분을 한번 추천을 받아서 각 안에 대해서 두 분씩이 나오셔서 얘기를 해야 이 안이 그냥 합의해야하는 하나의 안이 아니고 합의가 많다는 부분들을 오시면서 그 설명을 두 분 정도가 설명을 하는 게 보는 사람도 편하고 그렇지 않을까요.
위원장	- 그러면 하기 어렵다고 한 분에게 대신 조금 할 분을 추천해 달라. - 그러니까 지금 우리 ○○○ 위원님은 그래도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두 분이 같이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하기 어렵다는 분께 그렇다면 누구 한 분을 추천해달라 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으로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결을 하죠.
위원 모두	- 네
○○○ 위원	- 한가지 물어봐서 죄송한데 우리가 나중에 혹시라도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아직 결정난 건 아니잖아요.

	- 진행이 된다면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을 줄이고 지금 그냥 숙의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시나리오에 대한 소개는 저희 유튜브로 오리엔테이션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보통 저희가 유튜브나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이런 식으로 숙의를 했을 때, 그냥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앞에 우리가 어떻게 진행해왔고 그다음에 시나리오 워크숍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래서 이 시나리오가 나왔다 이거를 해준 다음에 저 내용이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그냥 시나리오에 대해서만 설명하면 되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좀 누가 위원회 차원에서도 어차피 만드니까 안 만들면 모를까 만들면 10분, 15분 해서 그 동영상을 만들어서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 왜 시나리오 워크숍을 했고 시나리오 워크숍의 목적이 뭐고 시나리오 워크숍의 목적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 위원	- 그래서 제가 원래 이거는 12일과 19일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때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해가 부족하니 이걸 해보자라고 했던 거고요. - 저는 만약에 이게 하루짜리로 우리가 되면 저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틀 차로 하기는 어렵다. - 연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 1일 차로 간다라고 놓고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공론화 이해 및 시나리오 워크숍 추진 경과 그다음에 토론회 안내, 그다음에 도시계획 및 이슈까지 설명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위원장	- ○○○ 위원님 굉장히 죄송합니다만은 문제는 나중에 세부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니까 여기서는 세부 편성 프로그램 논의할 때 다시 좀 얘기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고 먼저 공론조사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차 공론조사 내용을 좀 더 설명해 주시죠
#. 2차, 3차 공론조사 안 검토	
용역 수행기관	- 2차 설문안과 3차 설문안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일단 논의를 합니다. - 그래서 사전에 2차는 원래는 오리엔테이션 가장 처음에 저희가 아무 지식 없이 어떤 안을 갖고 계신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나리오에 대해서 각각 한 번 지지 정도를 척도로 물을 예정이었습니다. - 그래서 A,B,C 안에 대해서 묻고 각각의 안이 선택됐을 때 중요시설과 약간 서브시설의 비율 정도를 이거를 향후에 전주시에서 향후에 어떤 식으로 계획상에서 할지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물었습니다. - 만약에 시나리오가 선택된다면 그리고 중요한 게 또 교통량 증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할지 묻고 그러면 대안이 어떤 방안인지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거는 A, B, C,안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 A, B, C안에 대해서 각각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먼저 A 안에 대해서 지지 정도를 묻고 그 다음에 공간 구성에 대한 적정 비율을 묻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용역 수행기관	- 크게 봐서는 큰 줄거리는 똑같은 개념인데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되는 게 교통량 증가다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 라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 교통량에 대해서만 물어보았군요. - 나중에 계획이득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물어볼 겁니까?
용역 수행기관	- 2차는 구체적인 정보 없이 진행하는 거라서 일단은 그렇게 물었고요. - 그리고 3번이 일단은 중요하다고 생각한 항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여섯 가지 항목으로 물었고, 그리고 2차는 정보없이 하는 조사라서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정보를 접했는지, 이때는 자료집을 준 것도 아니고 물었고 공론화 과정에 대한 직감적 정보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 정도를 물었습니다.
위원장	- 나중에 세 가지는 비슷한 똑같은 거죠.
용역 수행기관	- 예, 맞습니다. 특히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계획 이행에 대한 거는 뒤편에 6번에 보면 그게 있기는 있습니다.
○○○ 위원	- 지금 AQ1-1,에서 비율을 물었습니다. - 두 번째에서는 그걸 빼고 나머지에 대한 또 거기서 비율을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AQ1-3는 또 AQ1 AQ2를 빼고 나머지 가지고 적정 비율 이렇게 되면 도대체 이게 헷갈려서 비율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것보다는 여기에 있는 중심시설 그다음에 상업 시설 그다음에 주거시설 기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들이 총체적으로 그걸 어느 정도 좋겠는가 이렇게 하나로 - 이거는(기존 설문) 비율을 선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자체는 하나로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어떻게 대하면 좋겠다. 바뀌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 제가 보기에 AQ1부터 AQ2-1 시나리오 뒤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뒤에 첫 페이지에 붙어 있는 건 이거 전혀 필요가 없는 질문이고 오히려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저해되는 질문이라고 보거든요. 정말 고민을 너무너무 많이 하면 다른 시나리오 토론했던 사람들에게도 묻지 않았던 질문이에요. - 근데 지금 시나리오를 주고 이 시나리오 중에서 선택할 사람들에게 이걸 묻는다는 게 저는 의미없다 생각해요. - 그리고 나중에 또 이 결과를 어디에 써먹을 거냐 라는 것도 사실은 여의치 않고요. - 만약에 오히려 이는 시나리오 1, 2, 3 간의 구성을 따진다면 그냥 우리 시나리오 1, 2, 3 응답 비율을 가지고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 응답 비율을 가지고 응답이 5점 척도에서 애는 1점 애는 3점 이거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 문제인데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 저 개인적으로는 뒤 페이지에 있는 거는 다 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냥 바로 Q3으로 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 그리고 Q5도 이 질문도 저는 이게 왜 뒤늦게 질문을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위원	-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어떤 시설을 중심으로 택하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 시설이 하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들어가거든요. - 그러면 이것이 규칙을 정해주지도 않아요. - 그냥 중심이라고만 알지 그럼 나중에 해석을 할 때 이것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비율들을 얘기를 하더라. 그리고 다른 것들도 상업시설 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의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시에서 어떤 협상을 하고 할 때 이런 식으로 비율도 이렇게 나왔다 이런 식으로 여기 첫째 안을 선택했지만 그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러면 두 번째 안을 택했지만 거기도 이렇게 나왔다 세 번째안 어떻다라고 해서 이것을 해석하는 여지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 그냥 단순한 이것만 딱 하게 되면 비율이 얼마인지 나중에 이거 중심지 아니야. 90% 달라 100% 달라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 그러면 이것은 아니죠.
위원장	- 그러면 지금 일단 하나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설문 2차 조사는 120분에 거의 논의 없이 처음 대하는 분에게 물어보는 설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위원님께서도 지금 그런대로 한번 구체적인 안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시죠. - 바로 Q3로 넘어가는 거보다는 전반적으로 한 번 물어보는 것은 의미있다.
○○○ 위원	- 그리고 저는 어떤 안이 과반수를 넘을 수도 있지만 안될 수도 있거든요. - 그러면 안 된 안을 의심을 하지만 다른 안 들에서 비율이 이렇다 과반수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 위원	- 이분들이 이날 오셔서 이야기를 듣고 논의를 하는 것은 시나리오 1, 2, 3가 있고 1, 2, 3 이런저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통해서 얘기만 하고 그러는데요. - 확실하게 구성 비율을 몇 퍼센트 당연히 이야기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와서 비율을 체크해주십시오 하면 우리는 그걸 비율 얘기를 안 했는데 갑자기 비율을 체크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을까 - 이 3안에 대해서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까 좋을까 어떤 시나리오가

○○○ 위원	뭐가 부족한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렇게 논의는 실제 논의는 질의응답도 뭘 고민해야 할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체크는 몇 퍼센트가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 위원	- 저번에 할 때도 사실은 어떤 중심이 있지만 거기에서 주거도 들어가고 릿도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다 있었어요 - 거기에 대해서 나름 대로 거기에 있어서 나름대로 선택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 그걸 나중에 무시하고 그러면 나중에 이거 가지고 어떤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 위원	- 2차 3차 설문지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2차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넣는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에서 나머지에 대해 시나리오에 대해서 묻는 것은 타당하다라고 보일 거 같고요. - 2차에서는 나머지는 세부 항목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 왜냐하면은 2차에서는 일단 숙의하기 전에 시민참여단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굳이 해서 나중에 의견 변화를 본다고 해도 별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 그래서 일단 2차에서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묻고 디테일한 건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그러면 3차에서 이렇게 디테일한 비율을 다 물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왜 필요한지 조금 이게 진짜 필요한지, 협상 과정에서 이제 저는 장단점이 있을 거 같거든요. - 오히려 이게 또 하나의 엄청난 발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 이게 왜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 이게 진짜 비율을 물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저희가 원래 시나리오 워크숍 할 때 의도한 바는 있습니다. - 이거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중에 중심 시설은 뭐가 되야되느냐 라고 이제 약간 유도를 했던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중심 시설에 대한 개념이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 그래서 오히려 그냥 중심 시설에 대해서만 비율을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을거 같습니다. 저의 생각은요 -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이 각각에 대해서 비율 묻고 교통에 대해서는 연관 검토사항이죠. - 이거에 대해서 연관 검토사항은 오히려 각 시나리오에 대해 다 묻는거 보다는 뒤에서 빼고 3차에서 정말 연관 검토사항에 필요가 된다면 나중에 크로스 교차 분석을 하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A 시나리오에 지지하는 사람은 이런 의견을 주었고, B 시나리오를 지지한 사람이 이런 의견을 줬다. 이게 분석이 될 거 같아요. - 리서치가 더 잘 알겠지만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안 물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복잡하다는 인식이 들 거 같고 3차에서는 좀 많은 걸 담아도 될 것 같습니다. - 왜냐하면 이거는 설문조사가 아니라 숙의가 끝나고 나서 어쨌든 오프라인 상에서 조사를 디테일하게 자기가 숙의한 내용을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고 의견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3차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문항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는 좋을 거 같은데 2차는 좀 뺐으면 합니다
○○○ 위원	-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2차는 아니고 3차 때 얘기입니다.
위원장	- 저도 3차 때는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비율에 대해서는 중심시설 이외에 나머지 것들도 굳이 왜 들어가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 이렇게 정리를 하면 ○○○ 위원님께서 그것도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일단 AQ1 A B C에 대한 것은 일단은 나중에 3차 조사 디테일 조사로 넘기기로 하고 그러더라도 2차 조사 숙의 전에 조사해 중심 시설에 대한 비율만큼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 아예 빼도 됩니까?
○○○ 위원	- 공론화라고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하고 모호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 애매하게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좀 더 시민들이 어떤 선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일단은 디테일을 하게 하는건 3차 조사를 넘기는 걸 하죠. - 3차 조사로 넘기는 걸로 하고 그러면 이 구체적인 조사를 안 하는데 그러면 완전히 다 3차로 넘길 거냐 아니면 이 2차 조사에 중심시설 여기에 이제 A, B, C 중심 A시나리오, B시나리오 각 시나리오 중심 기능에 대한 비율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느냐 아예 뺄 거냐 저는 아예 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습니까.
○○○ 위원	- 2차는 이게 어떻게 보면 도입이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A 안 B 안 C 안이 있을 때 이런 안이 있다, 그 안 중에서 그 안이라는 것을 중심 뭐다 뭐다 이렇게 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그중에서 중심이나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그 비율을 중심 정도는 한번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적고 나서 바뀔 수 있거든요.
위원장	- 그러면 저기 ○○○ 위원님 그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 디테일하게 안 물어보더라도 중심 기능 정도는 한번 물어보자.
○○○ 위원	- 2차의 중심시설 비중도 묻는거는 상관이 없고 3차도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 그런데 이렇게까지 많이 물을 필요는 2차든 3차든 없다고 봅니다.

○○○ 위원	- 지금 시나리오 A, B, C에 대해서 맨 밑에 질문이 장황한 설명을 하고 밑에 지지한다고 했어요. - 저는 전혀지지 하지 않거든요, 그럼 A안 비율을 응답 못해요. B안도 어떤 사람은 지지 안해요. 전혀 지지하지 않는데 상업시설 비율을 해달라고 하니까 황당해요
○○○ 위원	- 설명을 할 때 약간 좀 이게 그냥 핵심 질문이면 그 앞에 편안하게 설문에 들어가게 해야하는데 지금 오자마자 중심 질문으로부터 들어가서 불편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대로 유지한다면 앞에 이 시나리오가 물론 다 아시겠지만 시나리오 워크숍을 해서 나오는 몇 가지 안중에서 여러분이 그냥 물어볼 테니까 편안하게 답해 주십시오. - A, B, C가 내용이 있겠지만 이런 포맷도 A는 짧고 B는 또 1, 2, 3으로 되었고 C는 또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응답자로서 보면 어쩐지 C가 중요해보이고 이렇게 있거든요. - 그래서 가능하면 포맷을 조금 간단한게 좋을 거 같아요. 워딩을 좀 맞춰서 해줘야 할 것 같은데 공간 구성을 보면 A하고 B는 다르고 C는 같아요. - 3개가 차별화되는 것을 조금 강조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단 이분들은 OT는 받고 왔지만 잘 모르고 온 상황에서 하는 것이니깐 포맷을 맞춰주시고 - 그리고 뒤쪽에서 이미 공론화는 하고 있는데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든가 이런 면에서 문제가 있고 뒷부분에 인식이나 뭐 이런 설문도 이왕이면 앞에서 시나리오를 물어봤으니까 뒤에 계획이득, 도시 기반, 지역 상권, 교통 문제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문항들이 섞여 있는데 클러스터를 시켜서 묶어서 주면 혼잡할 것 같습니다. - 갑자기 쇼핑몰 이야기가 나오더니 그다음에 너무 중구난방이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 그것은 전반적인 얘기인 것 같아서 오늘 저희 얘기가 보니까 순탄치 않을 것 같은데요. ○○○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하는데 그다음에 중심시설에 대한 비율을 묻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 일단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자꾸 중재안을 내는데 ‘보통이다’도 아니고 ‘지지한다’ 이상 내는 분에게 중심시설에 대한 퍼센티지 정도만 묻는 걸로 다른 것은 2차 조사에서는 다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해주시면 A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 일단 각 A 이 시나리오에 계속 묻고 지지한다 이상 되는 분들에게만 중심기능에 대한 비중 정도는 묻는다 그러면 A, B, C는 동일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님이 얘기한 포맷에 대한 통일, 다음에 워딩에 대한 통일 이런 것은 조금.
○○○ 위원	- 포맷을 통일하는 거에 대해서 통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왜냐하면 이거는 시나리오 안이 저희들의 안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안이 아니라 각 그룹에서 3일동안 토의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었고 합의를 하기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 그런데 그거를 위원회가 거두절미해서 딱 잘라가지고 어느 거는 길고 어느 거는 짧으니 이거를 수정을 해서 위원회의 통일된 구색으로 갖추는 것은 32명의 시나리오 참여를 저희가 거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문장 하나를 문구를 다듬는대도 합의를 했고 거기에서 합의해서 만든 안인데 시나리오를 쓴 건데 저희가 무슨 권한으로 저는 이거를 요약할 하고 이러는 거는 좀 맞지 않지 않을까 - 저는 사실 요약도 뺏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셔야 돼요. - 저희가 체계적인 설문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저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약도 사실 보기 편하고 췌지만 요약이 이분들의 생각을 재단하고 짜집고 왜곡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 이렇게 하죠. 일단 요약은 빼주십시오. 요약을 함으로 해서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요약은 빼 주시고 시나리오에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황하게 할 필요는 없다. - 그 정도에 대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금 맞췄으면 좋겠다라고만 말씀드립니다. - 그러면 그렇게 넘어 가도록 하고요.
○○○ 위원	- 이게 시나리오 워크샵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는 좋습니다. 그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 근데 설문조사에 성격을 고려하면, 맞춰줘야 돼요. 3개가 어느 한쪽은 상황하게 설명을 하고 한쪽은 포맷이 전혀 틀려요. - 이렇게 이런 설문을 내용을 제시하면서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이게 어떤 경우엔 글자 한 자까지도 장수까지도 맞춰줘야 해요. 설문조사는 균형을 유지해줘야 하거든요. 3개의 안이 균형을 유지해줘야해요.
○○○ 위원	- 그래서 저희가 시나리오 구성할 때 그래서 이 3 파트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3 파트로 구분을 했었던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 참여하신 그 그룹을 지지하신 분들이 합의를 해서 이 시나리오 자체를 썼잖아요. 그런데 그 시나리오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잖아요. 짧다고해서 내용상 미래상, 공간구성, 연관 검토사항이 빠진 건 아니잖아요.

○○○ 위원	- 네. ○○○ 위원님 잠깐만 저기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 도시 기반시설 해서 미래지향적인 개발 협정에서 도로 신설 주차 등 해소 방안들을 요구된다. 그런데 1, 2, 3 이렇게 다 적었어요. 저는 도로 시설 등 주차 해소 방안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1, 2, 3을 확 줄일 수도 있다는 거죠. - 거기에 그러니까 표현의 방법에 따라서 1, 2, 3이 아니라 슬래시를 갖다 넣으면 이걸 확 줄일 수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그런 겁니다. - 슬래시 갖다 넣으면 1, 2, 3 해서 이걸 상황하게 늘리는 것보다는 이분들의 의견을 갖다가 받아들이면서도 어떤 의도적으로 이걸 좀 각 글자 숫자든지 자간을 맞추 수 있다. 그 노력을 해달라는 겁니다. - 제가 이걸 바꾸라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도시 기반 시설 1, 2, 3 이걸 1, 2, 3으로 할 건지 아니면 황방산 터널 확충 그다음에 아래에만 이런 식으로 슬래시를 갖다가 붙이면 세 줄을 한 줄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 얘기는 맞는데 저가 포맷을 맞춰달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수용하면서 형식적으로 포맷을 이렇게 요약하면 어느 것은 다섯 줄이 됐는데 어느 것을 두 줄이 되고 하는 것을 눈으로도 시각적으로 좀 조율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 위원	- 차라리 그대로 두고 요약을 통일시켜 살리는 것도 나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글썄 왜냐하면 아니면 다른 걸 다 빼고 아니 다른 걸 다 빼고 요약을 넣어버리든지 저는 만약에 요약을 넣을 거면 다른 거 빼고 요약만 한 것을 넣든지 포맷을 맞추려면 아니면 이런 설명이 있으면 요약 그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요약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 위원	- 생각해보시면 포맷을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포맷을 어떻게 준다는 세 가지를 쫓지 않습니까? - 미래상, 공간구성, 연관 검토사항 세 가지를 주고 연관 검토사항에 대해서 계획이득, 도시 지역상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쫓어요, 우리는 이미 요청을 했어요. 그분들은 어쨌든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그 세 가지를 채웠단 말이에요. - 그런데 그 방식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데 표준화시킬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 위원	- 응답자 입장에서 보시면 저희가 볼 때는 저는 내용 분석 하다보면 일종의 바이어스인데요 - 저희는 내용을 딱 보면 정리가 잘된 2번은 좀 깔끔해 보여서 어쨌든 여기가, 내용에 상관 없이 선입견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점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 위원	- 그러니까 저는 우리 ○○○ 위원님이나 ○○○ 위원님 그 어떤 시나리오에 참여한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살려줘야 한다는 것도 동의를 하고, 실제로도 설문조사할 때 보면 답이 있거네 하는 시각적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똑같은 것도 우리가 조금 노력을 하면 이게 비슷하게 맞출 수 있다.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포맷을 한번 하는데 노력해달라. -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 위원	- 그렇게 하시면은 각 참여자들에겐 동의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 아니 4쪽에 1, 2, 3이라고 한 것을 내가 볼 때는 이 주장의 어떤 내용을 훼손하지 않고 저는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도 안 됩니까?- 저는 1, 2, 3 이렇게 나열할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담으면서도 저는 줄 수 있다고 봐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 그러면 1, 2, 3을 줄이면 한 줄 내지 두 줄로 수도 줄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좀 해달라
○○○ 위원	- 이메일을 보내셔서 동의를 받으시죠.
○○○ 위원	- 동의를 받으시면 저는 괜찮아요. - 한 분이라도 동의가 안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솔직히 저희가 이렇게 합의문이나 뭐든가 아웃풋을 냈을 때는 조사 하나 바꾸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그걸 약간 물론 ○○○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 여기에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문구를 수정하거나 축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약간 편성을 편집을 바꾼다는 것을 동의하는데요. 그 내용이 변하지 않은 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참여자들이 모여서 정말 힘겹게 합의를 해서 문구 다듬는 과정도 지난 엄청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 문장을 이렇게 표현하네 저렇게 표현하네 이렇게 해서 만든 문구인데 그거를 위원회가 물론 권한이 있기는 하죠.
○○○ 위원	- 그 정도도 위원회의 권한이 없을까요.
○○○ 위원	- 위원장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쨌거나 A, B, C 시나리오가 지금 내용상에서도 편집상에서 어떤 것들은 많아 보이고 어떤 거는 적어 보이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줄일지 모르겠습니다. -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는 작업이 과연 그 합의의 정신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시나리오 워크숍에 참여하신 분들의 주신 의견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 동의하고 다만 그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금 보는 시각도

	중요하니 그것을 좀 하는 노력은 좀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것을 제가 얘기한 건 그거예요. -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 그렇게 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나중에 비교를 해서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단어가 시나리오 워크숍에 참여한 분들의 훼손을 하고 이것을 시나리오 워크숍에 참여한 분들에게 물어봐야겠다 한다면 물어보겠습니다. - 중요한 것은 아까 요약본을 삭제하자라고 했는데 우리 ○○○ 위원님께서 저런 것은 내용은 살리되 요약본이 요약도 중요하니 요약은 그대로 주자라고 하는 의견을 주셔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칫 요약 그 자체가 이 시나리오에 대한 것을 오해시킬 수도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해서 저는 뺐으면 얘기를 했는데 의견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	- 그런 우려들이 있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수님이 일정 정도 양의 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내는 것들이 공론화 위원회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요약 부분을 집어넣는 것도 저는 이해하는데 원하는 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수정 제안은 드립니다
○○○ 위원	- 위원장님 어떤 걸로 우려하시는 건지 충분히 되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요약본을 넣어서 어쨌거나 3개의 대꾸를 좀 맞추면 형식적으로 통일이 되는 거니까 원본을 살려주고 그 요약본을 조금 동일하게 형식이라든지 글자수라든지 좀 맞춰가지고 요약을 해서 다 맞춰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원본은 그냥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자 그러면 요약을 넣는걸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 모두	- 네
위원장	-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계획이득 환수 예를 들어서 2페이지에 대한 건데, 내가 그런 것을 작업을 하고 그런 걸 해서 저는 평생을 PPT를 만들고 이런 것을 작업을 해서 제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지만 잘 알고 있습니다. - 시인성이 계획이득 환수해서 하는 것보다는 계획이득 환수 그리고 줄을 바꿔서 점을 찍고 그다음에 설명해 주는 것이 훨씬 시인성이 좋습니다. - 그렇게 하면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6페이지 보시죠 도시기반 시설 해가지고 이거 써두면 이걸 잘 안 읽습니다. - 그러면 그걸 점을 찍어서 단락, 단락 구분하면 저는 신성도 높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 다음번에 그런 노력도 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이것은 또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지 모르지만 일단 최대한 이 시나리오 워크숍에 대한 얘기를 살린다고 하는 것으로 하고 요약에 대해서는 그대로 집어 넣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 위원	- 이거 할 때 앞에 이 별표 있는데 이 시나리오가 어디서 나왔는지 간단히 어디서 나왔는지 간단히 한줄 정도 해주시고, 질문입니다 하고 시나리오 A 한 다음에 그 밑의 질문으로 ‘시나리오 A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1, 2, 3, 4 하고 4, 5번에 대해서만 중심 시설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물어보려면, 문 몇 번으로 가시고 1, 2, 3은 문 몇 번으로 가라고 하시면 이렇게 해주면 좀 혼란이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 그것은 또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 그러면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교통에 대해서만 확실히 물어봤는데 교통에 대한 것을 연관 검토사항에 대한 것은 교통이 됐던 연관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3차로 옮기겠습니다. - 연관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여기서 교통에 대한 것은 특별히 물어볼 건지 아니면 연관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제3차로 넘기는 게 좋을지 어떻게겠습니까? - 왜냐하면 연간 검토사항은 어느정도 이해가 되어 연관 검토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연관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그냥 종합적으로 3차 때 연관 검토사항으로 여기서는 교통에 대한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물어보았거든요. - 각각 여기서 교통에 대해서 물어볼건지 뒤에 연관 검토가 있으면 연관 검토로 넘길 건지 말씀해주시죠.
○○○ 위원	- 뒤로 넘기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일단 넘기는 걸로 하죠. 그러면 Q3 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 Q3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대한방직 부지를 개발하는데 각 내용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물어본 것을 나눈거죠. 2개, 2개, 2개로 그랬던가요. 지난번에 의견 주신 걸 다시 바꾼 겁니까? - 5점 척도로 하자고 했죠. 이대로 가는 거죠. - 5점 척도로 바꿨으니까.
○○○ 위원	-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3번을 용어를 좀 통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발이익의 환수인지 계획이익의 환수인지 이게 다른 의미인지 여쭙보고 싶네요.
위원장	- 아니요. 계획이익의 환수가 맞습니다.
○○○ 위원	- 다른 것은 다 해소, 상생, 환수, 창출 이렇게 돼 있는데 4번 하고 6번만은 그냥 제시하고 끝나버렸거든요. 그런데 ‘전주 문화 관광 활성화’ 그다음에 6번은 ‘생태환경과 공익시설 확대’ 이런 거 얘기했죠. 창출, 환수, 상생, 해소, 활성화 확대 이렇게 용어를 맞춰주는 거죠.

위원장	- 개발이득을 계획이득으로 좀 바꿔주실래요. - 그러면 Q4로 넘어가겠습니다. 6개월 동안 각 내용들을 접한 적이 있습니까. - 이걸 지난 번에 조율을 한 거죠. 위원님 이걸로 괜찮겠습니까
○○○ 위원	- 거기 Q4의 1번이요. 지난 1개월에서 6개월은 잘 바꿨는데요. - 그 1번을 보면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방송 프로그램 및 언론보도 TV 라디오 등 ,지금 뉴스 소비가 인터넷이나 SNS이 이런 쪽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뉴스 및 토론회 등 언론 보도, 일단 언론 보도하면 거기에 다 들어가니까요. TV 라디오 쓸 필요 없고 SNS 쓸 필요 없고.
위원장	- 뉴스 및 토론회 등 언론 보도에 그렇게 뒤에 있는 부분을 다 빼버리고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 2번에 인터넷 정보가 있기는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 그다음에 5번 아까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용역 수행기관	- 이것은 3차로 옮기겠습니다. - 2차 때는 문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라서 5번은 3차로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 5번에는 3차례 넘기겠다. 괜찮습니까? - 3차로 넘기는 것에 대해서 5번 3차로 넘기겠다는 관계상 직간접적으로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내용들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왜 3차로 넘긴다는 거죠?
용역 수행기관	- 아무 정보 없이 이 내용에서 명확하게 판단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3차로 협의하고 나서 토론을 하고 나서 묻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일단 그러면 5번을 3차로 넘기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 위원	- 3차에 이거 여기서 빼는 거는 동의하는데 3차에서도 이게 꼭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 문항 같은데요
위원장	- 그러면 Q5는 삭제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Q6 계획이득 어떻게 할까요. 전반적인 연관 검토사항은 3차로 넘길까요. 아니면 여기서 그래도 좀 물어볼까요. - 제 생각은 연간 검토사항을 3차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 어떻습니까.
○○○ 위원	- 저도 3차로 넘겼으면 좋겠는데요. - 이런 건 있을 것 같습니다. 2차에 문항을 넣는 거에 그냥 제가 판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들이 시민참여단들이 숙의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항이면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설명을 했는데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숙의 과정은 그 테마에 대해서 의제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 뭔가 의제를 의제에 관심을 갖도록 시설을 끌기 위한 문항이면 들어가도 될 것 같고요.
○○○ 위원	- 아니면 저도 위원님 그냥 구체적인 건 얘기하지 않더라도 2차에 이러한 연관 검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매크로하게 한 건 연관 검토사항에 대한 인지도 인식 한 번 물어보는 건 어떠냐 생각이 되니다만
○○○ 위원	- 그래서 지금 Q3번에 연관 검토사항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좀 다르긴 하죠. - 아까 말씀하신 계획이득 환수가 들어와 있기는 하잖아요. - 근데 이제 지금 Q4가 제도를 마련하느냐에 좀 디테일한 부분 그거에 대한 구체화 방안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Q3으로 갈 건지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물을 건지는 어떻게 할까요 - 어차피 2차조사는 나중에 그냥 의견 변화만 보는 거지 그게 결과로서의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 위원	- 저는 이 상황 Q6이 잘 모르는 분들한테 처음부터 계획이득 환수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는 그냥 전반적인 우리가 다룬 연관 검토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인 한 번 물어보는 것은 좋을지 몰라도 구체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최종한데 계획이익이라는 용어 자체를 갖다가 주는데 계획이익이 뭐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오히려 개발 이익하면 이거를 개발해서 뭔가 이익이 생기면 환수하 나보다 이렇게 딱 일반인들도 숙의 전에 보통 알잖아요. 이게 뭐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계획 이익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되나 말아야되나 그거는 그냥 물론 전문가들은 알겠지만 이거는 진짜 평범한 일반시민이거든요. - 그래서 용어를 계획이익으로 쓰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뭐 정 그렇게 써야 한다고 하면 그냥 각주를 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만 먼저 정하죠. - 연관 검토사항에 관련 내용을 제 3차로 넘길 것인지 아니면 2차 때 한번 매크로하게 물어볼 것인지 그것만 좀 먼저 정리해 주시죠.
○○○ 위원	- 지금 이게 보니까 연관 검토 사항이거든요. - 이게 Q6하고 Q7이 연관 검토사항이고 Q8하고 Q9는 공론화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 그런데 아까 앞에서 지금 뒤로 넘긴 지금 교통 문제가 있어요. 기반시설에 관련된 그 문제를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여기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도 물어줘야 해요.

	- 그 내용이 기반시설에 관련된 교통 문제 그다음에 계획이득에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상권 문제 보는데 질문 내용을 보면 균형을 맞춰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면 지금 두 문제 세 문제 아까는 교통은 두 문항 이렇게 지금 구성을 했는데 그거를 뒤로 넘겨서 여기에서 물어주고요. 계획이득 이거 잘 모르니까 그렇지 토지가치 상승분인가요? 계획이득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뭔가요?
○○○ 위원	- 10페이지에 있는 관련 인식도가 제가 문항을 보니까 계획이득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시키기 위한 문항들인 것 같아요. - 현재 용도가 뭐로 되어 있고 기본계획상 뭐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앞에서 그 얘기들이 나오면 사실 이게 먼저 나오고 계획이득이나 설명을 해주더라도 나와야 할 것 같아서 이번에 크게 저기가 되지 않는다면 연관 검토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시나리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야 할거 같아요.
○○○ 위원	- 아니면 그냥 여기에 여러 가지 디테일한 문항이 다 있잖아요. - 다시 C에 Q2하고 Q6 Q7 전용적인거 3문항만 넣고 나머지는 뒤로 디테일하거나 빼면 괜찮을 것 같아요. - 그러니까 교통이 심각할 거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해 이거를 하나 묻고 그러면은 교통에 대한 연관 검토사항 이거를 고려를 해봐야 하는 것 거구나 생각을 할 거 같고 Q6를 넣으면 계획이득에 대한게 들어갈 거 같고요. - Q7을 넣으면 지역상권에 대해서 그냥 필요하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 위원	- 그러니까 이왕 하려면 Q3은 일종의 해결 방안이 비슷한 느낌이고 그러면 앞에서 차라리 Q3앞에 교통 혼잡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냐, 지역 상권의 영향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냐, 토지 소유주가 가지는 이득이 얼마라고 보냐 그냥 차라리 그렇게 물어보고 Q3을 좀 문항을 단화시키든가 해야지 Q3안에 해결책으로 나와있어요.
○○○ 위원	- Q3의 1, 2, 3이 있으니까 요하러 묻는다면 2-1, 6-1, 7-1 먼저 주는데 나을거 같아요. - 앞에는 지금 우리가 Q3이 지금 6가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 위원	- 아니죠. 교통 혼잡 해소는 해결 방안이에요. - 연관 검토사항에 대한 지역사회 상권과 상생 이것도 해결 방안이 먼저 나와버리면 안 되죠. - Q3에 그러려면 Q2를 해서 아까 뭐 세 가지 검토에 사람들이 얼마나 알고 있다는 걸 먼저 물어보고 얼마나 중요하냐고 물어보고 여기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거예요.
위원장	- 그러니까 지금 ○○○ 위원님은 먼저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를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Q3를 물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그러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는 여기서 얘기하는 C의 Q2을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 위원	- 제가 보기에 Q2 Q6 Q7은 Q3의 1, 2, 3과 똑같은 정밀하게 본다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 이분들이 전반적으로 자세히 보지만 다 어느 정도를 알고 있다고 하면 구체적인 걸 던져주면 이분들이 논의하면서 시나리오를 누리면서 이런 걸 고민할 수 있다라고.
위원장	- 그러니까 ○○○ 위원님은 넣는 건 좋은데 넣는다 하면 Q3 앞에다가 넣자 그 뜻입니다. - 그러면 이렇게 하죠. 앞에 중요한 얘기는 C의 Q2. 그다음에 또 어느 거죠 Q6 그다음에 Q7 이걸 물어보고 그다음에 Q3를 물어본다 됐죠. -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Q6에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시 발생하는 계획이득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공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거는 삭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계획이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줄을 달아서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줄을 다는 걸로 하죠.
공론화 진행 관계자	- 의사 결정하시는데 저희가 조금 상황에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회의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거같은데요. - 그러니까 엄격하게 설문조사에 아까 말씀하신 바이어스 문제까지 생각하면 용지만 주고 설명하거나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까만 저희가 공론조사를 하면 특히 2차 조사에는 조사기관과 숙의 기관이 동시에 마이크로 잡혀서 진행을 합니다. -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서 적절한 수준의 코멘트를 해서 이해를 도우면서 진행을 하니까 너무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 2차 3차 모두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론화 진행 관계자	- 그렇죠. 특히 3차는 다 아시니까 저희가 코멘트 할 것도 없고요. 러프하게 정리하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용역 수행기관	- 그리고 8번 9번은 3차로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 Q8 Q9번은 3차로 넘긴다고 했습니다. - 그 다음에 Q7-1은 이런 여기서 하는 거 아니죠. Q6-2도 그렇습니다.
○○○ 위원	- Q2, 6, 7 이걸 왜 아까 Q3에 1, 2, 3이 있는데 이 2, 6, 7을 굳이 또 물을 필요가 있나. 제가 넣자고 한 거는 -1 -1 -1을 넣자고 하는 거예요. - 앞에 부분은 2, 6, 7은 보기가 이렇게만 한다는 말은 제가 전달을 잘못했는데, 오히려 구체적인 걸 던져주는 게 차라리 알던 모르던 이분들이 이후에 논의해서 차라리 그게 더 낫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 2, 6, 7이라도. 3-1, 2, 3이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거 같아서

위원장	-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리하면 Q3을 물어보고 C의 Q1을 물어보자. 그 말씀이 되었죠. Q6-1 이거를 물어보자는거였죠.
○○○ 위원	- 그러면 이거는 그 답에 어떤 정확성이나 이런 신뢰도를 계속 고민 하지 않고 한번 던져줘서 저희가 고민하게 자 이런 뜻이라면 잘 모 르겠다는 말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괜찮죠. - 그러면 여기에 이게 Q3 다음으로 가야 해요.
위원장	-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 Q3를 먼저 물어보고 그다음에 CQ2-1을 물어보고 C6-1을 물어보고 Q6-1, Q7-1을 물어본다 이 뜻이죠? 잘 모르겠다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요. 그다음에 8과 9부분은 3차로 넘어가고 Q6 2도 3차로 넘어 가고요.
○○○ 위원	- 그 Q8은 그냥 넣어주면 어때요? - 현재까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냐고 나중에 또 더 논의한 뒤에 신뢰도가 높았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Q8만 넣어주고요.
위원장	- Q8 넣으십시오. Q9만 3차에 넣고요. - 자 그러면 파트 2로 넘어갑니다. - 부지 관련 인식도에 대한 의견인데 위치에 대해서 물어보았고 어떤 용지로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용도 지역으로 되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 위원	- 현재 용도와 앞으로 계획이 어떤가에 대해 Q12가 먼저 나오는게 맞지 않아요?
위원장	-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바뀌도 상관없습니다.
○○○ 위원	- 시가화 예정 용지는 뭔가요?
위원장	- 이것은 법적 용어예요. - Q12를 먼저 물어보고 Q11을 두 번째로 넣는다.
○○○ 위원	- 중요하지는 않지만 옛 대한방직 부지를 상업 용도로 바꾸려는 경우는 누군가에서 의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바뀌야 할 경우 이렇게 미래형으로 바뀌야 할 거 같아서요.
○○○ 위원	- 이 문항이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 이게 숙의문항을 묻는 건데 이 문항을 잘 만들어야 하는 게 여기가 공론화위원회에서 Q15라고 물어보는거는 상업용지로 바꾸는 거를 전제로 깔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사람 분명히 나타나요. - 중립적으로 잘 바꾸시던지 아니면 예시를 그냥 좀 약간 되게 문항을 중립적으로 만드셔야 해요
위원장	- 아니면 그냥 도시 기본 계획의 변경 승인권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넣는 건 어떨까요?

○○○ 위원	- 그렇게 하는게 좋겠네요.
○○○ 위원	- 지금 Q12에서요. 어떤 용도 지역으로 있는지 궁금한데요. - 포괄적으로는 전체 용도지역으로 들어가 있지만 일반 공업지역하고 준공업은 현저히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용도지역으로 되어있다고 하면 보통 일반 공업지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그냥 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이렇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 지금 현재로서 12번 이거는 용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 위원	- 저는 현재 일반 공업지역인데 그냥 공업지역이라 보게 되면 준공업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도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위원장	- 그래도 이것은 그냥 2차 설문이니까 이 정도로 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그렇게 17번으로 가죠. 주거지역이더라도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주변 지역 정세 분석 이것도 되게 어렵네요.
○○○ 위원	- 지금 여기에 17번에 지금 준주거지역이 하나 있는 게 사실은 전용 1종 2종 3종 있단 말이에요. - 여기서저렇게 또 준지역 이것이 어렵네요.
위원장	-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어려워요. 17번에 빼는 건 어떻습니까.
○○○ 위원	- 통계 처리해서 그런 거부감 반응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나중에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소득 수준을 한 상, 중, 하 정도만 물어보면 어때요. - 액수를 말하기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수준 정도만 물어보는거예요.
○○○ 위원	- 그렇게 상, 중, 하를 하게 되면 중으로 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하, 중하, 중, 중상, 상 이렇게 되면 나중에 합치면 됩니다. - 중하는 하로 합치고요
위원장	- 액수는 아니고 중에 대해서만 소득 수준 옆에 좀 세분하자. - 그러면 어려운 일단은 2차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3차는 다음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우리 위원님들도 좀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오늘 본회의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래도 이제 어떤 공론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보는 시각에서 과연 공론화가 여기가 말씀하신 대로 공정하고 공평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냐에 대한 어떤 의문을 많이 제시를 하더라고요. - 위원님도 잘 참고하셔가지고 마무리까지 그러니까 투명한 공론화를 진행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른 얘기하실 분 있으신가요?
공론화 진행 관계자	- 사실 12일 숙의는 그러면 없어진걸로 기정사실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 그러면 오늘 차기 16차 회의 일정을 정하고 마치도록하겠습니다. - 오늘 7일 했고 조금 진행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빨리 위원회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14일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 오전 14일 안 되시는 분? 다 괜찮으신 것 같아요. - 괜찮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14일 날 했을 경우에 그동안 장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할 시간은 됩니까?
전주시 관계자	- 이번주 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14일 오전이 괜찮다고 해서 14일날 오전으로 정하겠습니다. - 만약에 혹시 모르니 14일 오후도 괜찮으십니까? 안되시는 분? - 14일 오전, 오후 둘 다 괜찮으시대요. - 14일 오전 오후 다 좋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오전 오후 정해서 14일날 가급적 빨리 전화 주시길 바라고,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14일날 우리 중요한 것이 2차 조사에 대한 것하고 3차에 대한 것 검토할 테니까 그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으로 그러면 15차 시민공론화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